

좋은 죽음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한나영 · 윤홍주 · 박일환 · 정유석 · 유선미

요 약

연구배경: 죽음을 멀리 않게 생각하는 노인환자들을 흔히 접하게 되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노인들 및 그들의 가족을 보다 효과적이고 인격적으로 진료하고 돌보기 위하여,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 및 임종에 관한 인식,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었던 일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좋은 죽음 및 임종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홉 가지의 초점 질문을 구성한 후 연구자가 직접 천안시 노인복지회관의 노인 35명을 만나 면담을 하고 노인들의 이야기를 녹음하여 필요한 부분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코드 분류표를 구성하여 전사된 내용을 코딩한 후 범주별로 구분하였다.

결과: 총응답자 35명 중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대다수가 죽음을 삶의 끝 또는 종교적인 내세가 존재한다고 대답하였다. 임종 시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는 자녀들, 배우자가 많았으며, 임종을 맞이하고 싶은 장소로는 대부분이 집과 병원이라고 대답하였다.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는 적절한 수명, 무병사, 자식이나 부인을 먼저 보내지 않고 죽는 것, 자손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죽는 것,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죽는 것, 자손들이 다 잘 사는 것을 보고 죽는 것, 수면사, 무통사 등이 있었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노인들은 가족들에 관한 것, 자신의 직업 및 생계에 대한 것, 사회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였다.

결론: 노인들은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 적절한 수명, 고통이나 질병이 없는 죽음 등 본인 스스로와 관련된 조건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의 행복과 경제적 부, 정신적인 면을 함께 중요시하였다.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것에 대하여는 가족과 관련된 기억들이 많았으며 긍정적인 기억들과 부정적인 기억들을 함께 이야기하였다. (가정의학회지 2002;23:769-777)

중심단어: 노인, 임종, 안락사, 좋은 죽음

서 론

1950년 이래 세계의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도 또한 전체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절대수와 구성비율이 계속 늘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이렇게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일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는 죽음을 멀리 않게 생각하는 노인환자들을 흔히 접하게 된다.

한편 의료는 대상자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죽음을 앞둔 대상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자신의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대상자가 자신의 죽음이나 일상적인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이해하면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떻게 이 필요를 충족할 것인가를 차례로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²⁾ 죽음은 보편적 현상이

접수일: 2001년 9월 10일, 승인일: 2002년 5월 7일
교신저자: 박일환

Tel: 041-550-6385, Fax: 041-550-3905
E-mail: ewpark@kornet.net

되 그 의미와 표현양식은 문화마다 다양하다. 이 다양성을 인정하여 임종상황에서 문화에 일치하는 의료를 제공한다면 인간의 고통경감과 인류의 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의 최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상자 문화에 일치하는 임종의료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은 아직도 여러 문화에서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이에 대한 탐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죽음은 그것이 노인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온 것이든, 젊은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사건이든 간에 임종을 맞이하는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위기사건으로 일차의료 및 노인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는 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환자 및 그 가족들을 진료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내외적으로 죽음의 과정 및 좋은 죽음의 조건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Karen 등³⁾은 임종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 환자 및 그의 가족, 의료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들을 조사하였으며, 이주현 등⁴⁾은 생활주기의 일부로서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 두려움, 준비 등을 설문지를 통해 연구하였다. 또한 조영옥은 노인이 자식이나 배우자, 동료 노인의 죽음을 통해 체험하는 죽음의 의미⁵⁾와 민담 등에 나타난 한국인의 죽음의식⁶⁾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외국의 연구이거나, 노인이 아닌 임종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들 대부분이 설문지 조사 형식을 취하여 노인들의 생각을 일관화하거나 수치적인 통계로 알아보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노인들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내면의 생각을 알아보는 데는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가치와 정서에 근거하여 노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 및 노인들이 좋은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1. 자료의 수집

200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충남 천안시

소재의 노인복지회관을 한 명의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직접 방문하여, 노인복지회관의 회원 중 65세 이상의 노인 35명을 편의적으로 만나 직접 면담하였다. 좋은 죽음 혹은 죽음의 과정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완전히 구조화된 선다형 설문지법에 의한 조사를 지양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노인들의 이야기를 녹음하여 필요한 부분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직접 면담을 시행하기에 앞서 죽음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에 대한 충분하고 타당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임종 및 안락사,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 자신의 삶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홉 가지의 초점 질문을 구성하였다(표 1). 초점 질문의 내용은 기존에 있던 죽음에 관한 연구내용을 참조하여 저자들이 개발한 것으로, 그 내용은 노인복지회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한 후, 3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9명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의하여 수정 검토되었다.

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조건에 대한 내용과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일에 대한 자료의 분석은 대상 노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녹음한 후, 내면의 의미를 찾아내고 해석함으로써 노인들이 말하는 좋은 죽음의 조건과 삶에서의 의미를 찾아내는 데 목적을 두고 질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2.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면담 내용을 녹음한 후 필요한 부분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초점 질문을 이용한 면담 내용은 각 초점 질문별로 응답 내용을 코드화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좋은 죽음에 대한 질문과 삶의 의미 있는 경험에 대한 질문의 답에 대해서는 몇 명의 노인의 초기 면담을 시행한 후 코드화 작업을 위한 코드 분류표를 구성하였다.

좋은 죽음에 대한 초점 질문에 대한 언급을 분석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면담이 이루어졌을 때에 노인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된 부분에서 전사하여 각각의 구절을 열거하였다. 열거한 내용을 두 명의 연구자가 그 연관성에 따라 분류하여 8가지 코드를 만들었다. 이후에 좋은 죽음에 대한 노인들의 이야기는 이 코드 기준에 따라 코드화되었다.

표 1. 임종 및 좋은 죽음에 관한 초점질문

1.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그렇다면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당신은 임종 시 누구와 함께 있고 싶으십니까?
3. 임종을 맞이하는 장소는 어디가 좋겠습니까?
4. 당신은 의사나 가족으로부터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기를 원하십니까?
• 미리 알고 싶으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5. 만일 당신이 불치의 병을 선고받았다면, 계속적인 치료 또는 치료포기에 대한 결정은 누가 내릴 수 있습니까?
6. 만일 당신이 암과 같은 불치의 병에 걸려 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편히 죽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처방 받으시겠습니까?
7. 만일 당신이 암과 같은 불치의 병에 걸려 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목숨이 다할 때까지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병원이나 집 등에서 자연사하시겠습니까?
8. 당신은 어떤 죽음을 좋은 죽음(good death)이라고 생각하십니까-당신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9. 당신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의미가 있을까요?

표 2. 설문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목	명(%)
평균나이		74.2±7.8
성별	남	19 (54.3)
	여	16 (45.7)
교육정도	무학	5 (14.3)
	국졸	23 (65.7)
	중졸	5 (14.3)
	고졸이상	2 (5.7)
결혼상태	기혼	21 (60.0)
	사별	13 (37.1)
	별거	1 (2.9)
종교	기독교	11 (31.4)
	불교	4 (11.4)
	천주교	4 (11.4)
	무교	16 (45.8)

임종시 삶의 의미 있는 경험에 대한 답변은 개념을 구분하기 위한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범주별로 구분하였는데, 범주화를 위한 매트릭스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이야기를 우선 주제의 긍정성에 따라 구분하였다. 부정적 이야기와 긍정적 이야기로 크게 범주화하고, 각 범주에서 사회적 요인에 따라 세분하였다. 사회적 요인으로 가족, 직업 또는 생계, 사회관계

와 관련된 이야기 등으로 구분하여 매트릭스를 구성하였고, 노인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범주화 매트릭스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코드화되어 분류되었다.

결 과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4.2±7.8세이었고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19명, 여자 16명이었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2. 죽음에 대한 견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초점 질문에는 총응답자 35명 중 대부분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그들 대부분은 죽음을 삶의 끝이며 그 이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종교적인 내세가 존재한다고 대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으며, 그 외에 자연으로 돌아간다, 혼이 떠난다고 이야기하였다(표 3).

임종 시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는 자녀들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라고 대답한 사람도 많았다. 어떤 이들은 자녀들과 배우자를 동시에 선택하였다. 또한 임종을 맞이하고 싶은 장소로는 집, 병원이 많았으며 특별히 상관없다고 대답한 사람

도 있었다.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초점 질문에 대하여는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반수정도였으며,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싶은 이유로는 미리 유언을 하고 싶다, 마음의 준비를 한다 등을 들었다(표 4).

3. 안락사에 대한 견해

“당신이 만일 불치병을 선고받았다면, 계속적인 치료 또는 치료포기에 대한 결정은 누가 내릴 수 있습니까”라는 초점 질문에는 본인 자신이라고 대답한

노인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는 배우자, 자녀, 의사라고 대답하였다. 적극적인 안락사에 대한 질문인, “만일 당신이 암과 같은 불치의 병에 걸려 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편히 죽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처방 받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노인들의 대부분이 처방 받고 싶다고 대답하였으며, 소극적인 안락사에 대한 질문인, “만일 당신이 암과 같은 불치의 병에 걸려 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목숨이 다 할 때까지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병원이나 집 등에서 자연사하시겠습니까”라는 초점 질문에 대하여는 끝까지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보다는 포기하고 자연사를 기다린다고 대답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표 5).

4.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

노인들은 다음과 같은 죽음을 좋은 죽음으로 꼽았으며,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복이라고 생각하였다.

표 3. 죽음에 대한 인식 및 인식내용

질문	명
•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있다.	25
없다.	10
•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끝이며 그 이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22
종교적 내세가 존재한다.	8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다.	2
기타	3

표 4. 임종에 대한 인식

질문	명
• 임종 시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배우자*	10
자녀들*	27
특별히 상관없다	5
• 임종을 맞이하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집	22
병원	9
기타	4
• 자신의 임종을 미리 알고 싶으십니까?	
예	18
아니오	15
상관없다.	2

*응답자 중 7명은 배우자와 자녀들이라고 중복 대답함.

표 5. 안락사에 대한 정보

질문	명
• 불치병을 선고받았을 때 치료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본인 자신	28
자녀들*	4
배우자*	2
의사	1
모르겠다.	2
• 당신이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려 고통이 심할 때, 편히 죽을 수 있는 약을 처방 받으시겠습니까?	
처방받고 싶다.	28
처방받고 싶지 않다.	5
있을 수도 없다.	1
• 당신이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려 고통이 심할 때라도 목숨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고 병원이나 집 등에서 자연사를 기다린다.	25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다.	9
기타	1

*응답자 중 2명은 배우자 및 자녀들이라고 중복 대답함.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조건은 표 6에 나타나 있다.

1) **적절한 수명**: 많은 노인들이 좋은 죽음의 중요한 조건으로 적절한 나이까지 살다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적절한 나이에 대한 표현으로는 70세 또는 80세 이상 넘어서 살다가 죽는 것, 지나치게 오래 살지 않고 죽는 것, 자기 명대로 오래 살다가 죽는 것,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살다가 자연사하는 것 등이 있었다.

“옛날에는 환갑 지나면 죽을 연령이 됐다고 했는데 이후에 죽는 것을 호상이라고 하고, 너무 젊어서 죽으면 악상이라고 하지. 내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지금 죽어도 호상이라고 남들이 생각하겠지.”

“운명을 다 할 때까지 살다가 죽는 것이 좋지....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자연사야. 그런 식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이지.”

2) **무병사**: 노인들은 병으로 오래 앓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큰 중병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을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 꼽았다. 무병사에 대한 노인들의 표현을 보면 병 앓지 않고 죽는 것, 오래 앓지 않고 죽는 것,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 죽는 날까지 내 수족놀려 살다가 죽는 것 등이었다.

3) **자손이나 배우자보다 먼저 죽는 것**: 노인들은 좋은 죽음의 또 다른 조건으로 자손이나 자신의 배우자의 죽음을 자신이 겪지 않고 자신이 먼저 죽는 것을 꼽았는데, 이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자신이 겪고 싶지 않다는 의미와 함께, 생명의 연속선상에서의 순서를 어기지 않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대한 노인들의 표

현에는 자손들 남겨두고, 자손들 먼저 보내지 않고, 자손들이 다 살아있을 때 등이 있다.

“부인, 손자, 증손자 등의 가족들이 원만하게 살고 그 가운데서 죽었다고 하면 호상이고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죽었다던가, 할아버지 앞에서 손자가 죽었다던가 이게 악상이 아니겠어요?”

“... 왜 그러냐면 부인은 항상 곁에 있는 식구니까, 죽음의 애도는 당연히 식구가 먼저겠죠. 내가 먼저 죽으면 부인이 임종을 지켜볼 테고, 그것이 부부의 천륜이죠.”

“영감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영감이 먼저 죽을지도 모르지만 영감이 곁에 앉아있는 것이 좋지.”

4) **자손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죽는 것**: 많은 노인들이 자신들이 지나치게 오래 사는 것이 자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 죽는 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동양적인 것으로 개인주의가 만연한 서양적 사고와는 달리 자신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혈육인 자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노인들은 자손들에게 폐 끼치기 전에 죽는 것, 너무 오래 살지 않고 자식들이 ‘조금 더 사셨으면....’할 때까지 살다가 죽는 것, 자손들에게 부담주지 않을 때 죽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불치병에 걸려 가지고 말이야. 참, 오물을 흘려서 말이지, 머느리나 처자식들이 받아낸다는 것이 참 어렵거든. 그럴려면 차라리 얼른 가는 것이 자식들한테 도움이 되고, 본인도 편하고, 난 그렇게 생각해.”

5)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죽는 것**: 자신의 임종을 온 가족이 지켜주는 것 또한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대한 노인들의 표현에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등이 있다.

6) **자손들이 다 잘사는 것 보고 죽는 것**: 자신의 정체감을 자손에게 이산한 노인에게 자손은 곧 자기 자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손들이 잘 사는 것은 노인의 정체감에 있어서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이 다 잘 사는 것 보고 죽는 것은 노인들에게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한 노인들의 표현은 자식들이 다 성

표 6. 노인들이 생각하는 호상의 조건

적절한 수명
무병사
자식이나 부인을 먼저 보내지 않고 죽는 것
자손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죽는 것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죽는 것
자손들이 다 잘 사는 것을 보고 죽는 것
수면사
무통사

장한 후에, 자식들을 다 출가시킨 후, 자손들이 편안할 때, 남은 가족들이 화목하게 살고 있는 모습보고 있을 때 죽는 것 등이 있다.

“자손들이 잘 사는 것 보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 가. 큰아들은 그냥 그냥 사는데, 작은아들은 큰 횃집을 냈거든. 크게, 그래, 돈이나 좀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을 보고 죽어야 할텐데...”

“자식들 낳아 가지고 다 성장하고 다 출가시키고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이지.”

7) 수면사: 많은 노인들이 자다가 또는 잠자듯이 죽고 싶다고 이야기했으며 이것이 좋은 죽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였다.

“저녁 먹고 자다가 자듯이 죽는 게 그게 원이에요.”

“저녁 잘 먹고 내일 아침에 문열어 보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저께 저녁 잘 잡수고 돌아가셨구나 이러는 걸 바라는 거여.”

8) 무통사: 대부분의 노인들은 죽음에 직면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죽음과 관련된 고통 없이 죽는 것을 좋은 죽음의 한 조건으로 꼽았다. 죽음에 대한 고통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편안히, 고생 안하고, 험한 꼴 안보고 등이 있다.

“고생 안하고 그저 얼른 죽는 거 그게 호상이여.”

“90살이나 살아서 오줌, 똥이라도 싸고 고생하면 그 설움이 얼마요. 그렇게 안됐으면 좋겠어요.”

5. 임종 시 노인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삶의 경험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노인들은 부정적인 사건보다는 긍정적인 사건을 더 많이 이야기하였으며, 가족과 관련된 기억들이 가장 많았다(표 7). 가족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억으로는 자식들 낳고 키우고 가르쳐서 출가시킨 것에 대한 것과 자손들이 다 잘 살고 집안이 무고한 것에 대한 것, 가족과 화목하게 지냈던 것 등을 이야기하였으며, 부정적인 기억으로는 어려웠던 시집살이와 남편이 바람을 피워 마음 고생하는 것 등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의미 있게 생각하는 내용은 자신의 직업 또는 생계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젊은 시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생하던 일은 이와 관련된 가장 많은 부정적인 기억이었으며, 긍정적인 기억으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생계를 꾸려온 것, 군생활이나 공직생활에서 자부심을 느꼈던 것, 자수성가 등

표 7. 임종 시 노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기억들

	긍정적인 사건들	부정적인 사건들
가족과 관련된 것	- 자식들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출가시킨 것 - 자손들이 잘 살고 집안이 무고한 것 -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낸 것	- 어려운 시집살이 - 남편이 한평생 바람 피운 것
직업 또는 생계와 관련된 것	- 열심히 생계를 꾸려온 것 - 군생활이나 공직생활에 대한 자부심 - 자수성가	- 먹고살기 힘들어서 고생하던 일
사회와 관련된 것	- 남에게 빚지거나 피해준 일 없이 살아온 것 -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온 것 - 사회봉사 - 불의에 대항해 싸우던 일 - 사후 시신기증	
기타	- 종교생활 열심히 한 것 -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다 해본 것	- 하고싶은 일 다 못하고 죽는 일

의 이야기가 있었다.

사회와 관련된 기억으로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였는데, 남에게 빚지거나 피해준 일 없이 살아온 것,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던 일, 사후 시신기증, 사회봉사나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던 일 등을 이야기하였다.

그 밖의 의견으로 열심히 종교생활 하고 있는 것과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 다해본 것,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다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후회 등을 이야기하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가치와 정서에 근거하여 노인들이 생각하는 임종의 과정 및 좋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대상노인 35명 중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는 이전에 이 등⁴⁾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방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결과에서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노인이 삶의 끝이라고 대답하여, 대부분의 노인이 종교적 내세가 있다고 대답한 이 등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응답자 중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반인데 비해 이 등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응답자의 종교적인 영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임종 시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는 자녀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배우자였다. 이는 최 등⁷⁾이 서울의 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 순이었던 것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노인들의 경우 사별하여 배우자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도 많았고, 나이가 들면서 자아가 약해져 자손을 자신의 분신으로 보고 의지하는 경향이 증가되며,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의지가 현재의 대학생 세대에 비하여 덜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임종을 맞이하고 싶은 장소로는 집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병원이었다. 임종을 앞둔 노인들은 그들의 삶에 의미를 주었던 환경 속에서 그들의 삶에 보상을

제공했던 사람들에게 돌려써어 품위 있게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집은 노인에게 친숙하고 안정된 장소로 죽음의 복을 누리는 장소이다. 그러나 실제 다른 연구의 통계에 의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암 환자의 20%만이 집에서 임종을 맞으며 80%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임종을 맞는 것으로 나타나⁸⁾ 노인들의 이러한 소망은 실제의 임상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다. 또한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른 병원 내 임종이 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대다수의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임종을 맞고 싶다고 대답하여 가족자원을 가정 내의 의료처치에 적절히 이용하고 노인들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반면, 일부 노인들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걱정과 남아있는 가족들의 장례상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안락사(euthanasia)는 그리스어의 good이라는 뜻의 'eu'와 death라는 뜻의 'thanatos'에서 유래한 말이며 그 의미는 아름다운 죽음, 평화로운 죽음, 깨끗한 죽음으로 고통이 없는 편안한 죽음이라 할 수 있다.^{9,10)} 본 연구에서는 전체 노인의 대부분이 암과 같은 불치의 병에 걸려 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포기하고 병원이나 집 등에서 자연사를 기다리고 싶다고 대답하였고, 전체 노인의 많은 수가 고통 없이 편히 죽을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처방받고 싶다고 대답하여 이전에 남 등¹¹⁾이 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최 등⁷⁾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에 참여한 노인들이 적극적 또는 소극적 안락사를 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신 스스로가 당하게 될 병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둘째는 자신이 불치의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게 될 경우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겪게 될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또한 노인들이 안락사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이유로 병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은 가정 의학과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호스피스 의학의 도움으로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¹²⁾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호스피스 환자를 돌보는 것에 필요한 의학적 관심과 교육이 중요하다.

죽음의 복을 생의 가장 큰 복 중 하나로 간주하는 노인들에게, 좋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거론되기 마련이다. 죽음의 복과 욕은 고통유무, 죽음의 시기, 죽음의 유형 등에 따라 결정된다.¹³⁾ 본 연구에서 노인들은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 적절한 수명, 무병사, 자식이나 부인을 먼저 보내지 않고 죽는 것, 자손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죽는 것,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죽는 것, 자손들이 다 잘 사는 것을 보고 죽는 것, 수면사, 무통사 등의 이야기가 코드화되었으며,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운명론적인 사고를 보였다. 노인들은 흔히 자신이 바라는 죽음을 “저녁 먹고 자다가 자듯이 죽는 게 그게 원이에요.”, “저녁 잘 먹고 내일 아침에 문열어 보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저께 저녁 잘 잡수고 돌아가셨구나 이려는 걸 바라는 거여.”라고 표현하였다. 노인들은 잠자는 듯이 고통 없는 자연사를 복된 죽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통은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 이외에도 자손이나 배우자를 먼저 잃는 심리적 고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자신이 떠나고 난 후 남아있는 가족들의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병으로 자손에게 의지하거나 자신의 죽음으로 자손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의 경우, 즉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자손의 수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자신들이 지나치게 오래 사는 것이 자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 죽는 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동양적인 것으로 개인주의가 만연한 서양적 사고와는 달리 자신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혈육인 자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의학과 의사는 한 개인의 전 생활주기를 다루고¹⁴⁾ 그 개인이 포함된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자의 역할 이외에도 교육자, 옹호자, 관리자 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¹⁵⁾ 따라서 한 개인이 탄생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가족이 겪는 의료적, 가족적

문제를 돕고 나아가 죽음이라는 생활현상을 통해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연구는 흔히 노인환자들을 접하게 되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자신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생각하고 있는 노인들 및 그들의 가족을 진료하고 돌보는 데 필요한,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조건을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알아봄으로써 노인들의 생각을 보다 진솔하게 듣고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천안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경제적, 학력 수준이 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도시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또한 그 대상범위를 건강한 노인이 아닌 실제로 임종을 맞고 있는 호스피스 노인이나 노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유형준. 노인병학. 의학출판사; p. 36-40.
2. Bishop Anne H, John R. Scudder. Nursing: The practice of caring; NLN Press, New York, 1991.
3. Karen E, Steinhauer, Elizabeth C, Clipp, Maya McIveilly, Nicholas A, Christakis. In search of a good death: Observation of patients, families, and providers. *Ann Int Med* 2000;132(10):825-32.
4. 이주현, 문유선, 이해리. 생활주기의 일부로서 죽음에 관한 예견지도에 대한 예비조사. *가정의학회지* 1997; 18(5):511-20.
5. 조명옥. 노인이 체험하는 죽음의 의미. *중앙의학* 1998; 63(2):137-56.
6. 조명옥. 한국인의 죽음 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1996;61(9):725-45.
7. 최윤선, 신종민, 이영미, 이태호, 홍명호, 김준석 등. 대학생들의 임종진료에 대한 태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1999;2(1):16-22.
8. 신동학. 가정의학. 임종환자의 관리. 2nd Ed., 1994: 200-13.
9. 김달숙, 서문자. 소생불가능한 환자가족의 안락사에 대한 의식구조. *충남의대잡지* 1983;10(2):383- 95.
10. 김일순. 새롭게 알아야 할 의료윤리. 서울: 현암사; 1993:158-75.
11. 남미영, 이수찬, 서영성, 김대현, 신동학. 소극적 안락사

- 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 가정의학회지 1995; 16(12): 874-79.
12. 홍영선, 염창환, 이경식. 안락사.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1999;2(1):1-6.
13. 노유자. 호스피스와 죽음. 현문사; 1994.
14. Duvall EM. Family Development. Copyright 1957.
15. Taylor RB. Family Medicine. 3rd edition, Springer-Verlag, 9-10.

Abstract

Perception of a Good Death in the Elderly

Na Young Han, M.D., Hong Joo Yoon, M.D., Eal Whan Park, M.D.,
Yoo Seock Cheong, M.D. and Sun Mi Yoo,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Dankook University

Background: Family doctors are usually point of contact when the elderly think their death is imminent. To properly treat their disease and to provide good care of them and their families, family doctors must know the elderly's perception of a good death and dy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mponents of a good death from the elderly.

Methods: We composed 9 questions focusing on good death and dying. A family medicine resident interviewed 35 people ages sixty five or over in Cheonan Welfare Center. The contents were recorded into audiotapes, and then translated and analyzed by quantitative method and coding technique.

Results: Among the total 35 respondents, many elders answered that they had thought about death and that the meaning of a death was the end of life, or transition from one world to another in religious belief. In their dying, they hoped that they would be with their offspring or spouse and that they would be in their home or hospital. Old people identified 8 major components of a good death: proper age, death without disease, death before death of their offspring and spouse, dying when whole family get together, death after seeing their family happy, death during sleep, and death without pain. They pointed out that the most meaningful event in their lives were related to their family, occupation and society.

Conclusion: The elderly identified a good death in view of family as well as personal conditions such as proper age, a death without pain or disease. And most elderly pointed out that meaningful events in their lives were related to their family, occupation and society. (J Korean Acad Fam Med 2002;23:769-777)

Key words: elderly, dying, euthanasia, good death